

카자흐스탄, 원유·가스 생산의 지속적 증대 예상

1. 원유 가스·산업이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

□ 풍부한 원유·가스 매장량을 바탕으로 고속 성장

-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세계 9위의 영토 대국으로 카스피해지역에서 가장 많은 원유를 보유하고 있음. 2011년 기준 연간 163만 배럴의 원유(세계 19위) 및 178억 입방미터의 가스(세계 24위)를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며 원유 생산량은 중동부 유럽지역 총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함.
 - 카자흐스탄은 확인매장량 기준 300억 배럴의 원유(세계 12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미발견량을 포함하면 최대 920억 배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가스 매장량의 경우 25천억 입방미터(세계 16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미탐사 지역이 많아 추가 개발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됨.
- 카자흐스탄은 2000년부터 유럽 경제위기 이전인 2007년까지 풍부한 원유·가스 생산량을 바탕으로 연평균 10%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했으며, 2011년 기준 석유 산업은 GDP의 30%, 수출의 50%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으로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

<표 1> 카자흐스탄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2008	2009	2010	2011 ^e	2012 ^f
3.3	1.2	7.3	6.8	5.4

자료: IMF.



2. 원유·가스 생산의 확대 예상

□ 카자흐스탄 정부, 원유·가스 산업에 대한 지속적 육성 계획

- 카자흐스탄 정부는 원유 및 천연가스 산업을 다각화함으로써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원유 및 가스 채굴량의 지속적인 확대, 원유·가스 산업구조의 고도화 등을 추진하고 있음.
- 2009년 1월 카자흐스탄 정부는 정유능력 증대를 위해 향후 6년 동안 31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였는데, 기존 3개의 정유공장인 서부(Atyrau), 남부(Shymkent), 북부(Pavlodar)에 정유능력 증대를 위해 각각 19억 달러, 6억 8천만 달러, 5억 7천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어서 원유생산량이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됨.
- 2009년 6월 카자흐스탄 경제부장관은 외국인투자를 확대시키기 위해 정부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외국인투자자의 이익 재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등 외국인투자 유인을 증대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음.

□ 원유·가스 생산량, 2016년까지 현재의 40%, 94% 증대 계획

- 카자흐스탄 정부는 수출산업의 다변화와 수출대상국 확대를 위해 다양한 송유관 및 가스관 구축을 추진할 계획임. 세계 1위 에너지 소비국인 중국은 전략적인 광물 자원의 확보 차원에서 카자흐스탄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예정이며, 러시아도 유럽 국가들의 자원 공급 의존도를 유지시키기 위해 송유관·가스관 구축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
- 카자흐스탄 정부는 현재 개발 및 탐사에 국한된 원유·가스 산업구조를 다각화시키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석유화학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시킬 계획이며, 2016년까지 원유는 연간 228만 배럴, 가스는 345억 입방미터를 생산할 것으로 전망됨.



<표 2>

원유·가스 생산량 추이

단위: 원유 만, 가스 억

	2011 ^e	2012 ^f	2013 ^f	2014 ^f	2015 ^f	2016 ^f
원유(배럴)	163	166	172	186	212	228
가스(m ³)	178	254	324	332	339	345

자료: BMI.

3. 외국인투자여건 개선 시급

□ 원유·가스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여건 개선 필요

- 원유 및 가스 생산 능력의 부족, 낮은 노동생산성, 취약한 교통 인프라 및 복잡한 노동허가 절차가 외국인투자를 저해시키는 것으로 분석됨.
 - 카자흐스탄의 정유시설 및 가스 생산설비가 1990년 이전 구소련시기에 건설되었고 대부분이 국가 소유로 남아 있어 생산설비가 낙후되었으며 이로 인해 실제 생산가능량의 50% 정도만 생산되고 있음.
- 실제 카자흐스탄에서는 원유 수출세 부과에 따른 투자비용 증가, 원유 및 가스 채굴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소유지분제한(50% 이내)이내 등의 제약요인이 우려되는 상황임.
- 2011년 9월 IFC가 평가한 기업경영여건 순위는 평가대상국(183) 중 2010년의 58위에서 47위로 상승(투자자 보호 및 조세 분야 개선)하였으나, 사업인허가 취득 및 무역관련 분야의 투자환경이 아직도 열악한 수준으로 분석됨.

【서 은 주】